

‘광주 1번지’ 전일빌딩 활용 원점 재검토

광주시, 타당성 용역 내년 초 발주 ... 7~8월께 마무리
 리모델링 비용 300억 원 ... 국비 등 문광부 지원 절실

5·18 민주화운동 등 광주의 현대사와 부침(浮沈)을 함께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이 문화관광부의 외면으로 인해 4년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광주시가 뒤늦게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문화관광부 등 정부의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정부 설득 등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소유자의 부도 등으로 경매로 나온 전일빌딩을 광주도시공사가 138억원에 매입했다. 광주시가 매입할 경우, 2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시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등 매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광주도시공사가 대신 매입한

것이다. 매입 이후 주차장 부지, 언론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창작지원센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백지화되는 등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광주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전당에서 만든 콘텐츠를 아시아 전역에 내보내는 방송국인 ‘아시아문화채널’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문광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무산됐다.

이처럼 전일빌딩 매입 이후 광주시가 4년째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서 광주도시공사는 매년 2억4000여원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영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 측도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면서 전일빌딩 처리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재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한 전일빌딩이 4년여 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전일빌딩 재매입 비용과 40억 원 안팎의 건물 보수·보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200억~300억원대로 추정되

는 리모델링 등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시가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지원 및 사업 발굴이 절실하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2개월여 걸친 정밀 안전진단을 벌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C 등급을 받았다. 또한, 전일빌딩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내년 초에 발주해 7~8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전문가와 의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활용방안을 최종 확정된 뒤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문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전당 보안시설 및 추가 요구 시설 활용 방안 등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제모습 드러낸 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이 문화전당 공식개관(25일)을 앞두고 최근 공사현장 가림막을 모두 철거했다. 문화전당은 공식개관 이후 예술극장, 창조원, 정보원 등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 ‘천경자 미인도’ 재감정 요청

최근 국회에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재감정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지난 5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앞으로 ‘천경자 미인도의 재감정 요청의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부의장은 요청서에서 “본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1991년 위작 논란이 일었던 미인도에 대해 고미술감정 협회 등 유관기관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나신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국회나 유족이 요구하지 않으면 재감정하지 않는

현대미술관 “국회·유족 요구 필요”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직접 나서

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의장은 재감정 요청 이유로 ▲작가(천 화백)가 지속적으로 위작이라고 주장했던 점 ▲권춘식씨가 자신이 그린 위작이라고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당시 수사검사의 최순우 변호사의 증언 ▲위작이 맞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다시 파헤쳐봐

야 한다는 유족의 주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또한 “이 건이 고인이 된 작가의 명예와 연관돼 있고 만일 위작인 경우 위작을 계속 소장하는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손상이 될 수 있다”며 재감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9일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풍년에 가격 ‘뚝뚝’

米 : 쌀의 눈물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424만1000t)보다 0.4% 증가한 425만8000t이 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1인당 쌀소비량은 65.1kg로 2005년(80.7kg)보다 19.3% 줄어 쌀 재고가 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136만t으로, 적정 규모(80만t)보다 약 56만t이 많다.

전남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전남 쌀 생산량은 지난 2003년 80만9201t에 비해 5.9% 늘어난 85만7224t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마다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쌀 예상 생산량을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확을 앞두고 병해충이 돌아 수확량이 소폭 줄었지만 올해는 정부 조사 이후 병해충 피해가 전혀 없어 추정치보다 실제 생산량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3일께 정확한 수확량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늘어난 쌀 생산 탓에 벌써 현지 쌀 가격은 내리고 있다.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80k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고 1만2000원(8.3%) 하락했다.

올 전남쌀 생산량 90만 톤
 정부 예상치 훌쩍 뛰어넘어
 재고량 많고 소비량은 줄어
 쌀값 폭락 ... 농민들 한숨만

올해 전남 쌀 생산량이 정부 예상치(85만7224t)를 훌쩍 뛰어 넘어 9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쌀 재고물량이 많은데다 소비량도 해마다 감소, 생산량이 증가할 수록 제값을 받지 못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농민들의 얼굴색도 어두워지고 있다. 실제로 전남지역 현지 쌀값도 푹 떨어지고 있다.

8일 통계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이같은 쌀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 줄었지만 날씨가 좋고 병충해·태풍 등의 피해가 없어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20kg에서 533kg로 2.5% 늘어 올해 역시 풍년이다.

한편 대북지원 등 쌀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 등 여건이 여의치 않아 쌀 재고 처리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인 대북 지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난달 8일 정부가 추가로 쌀을 시장격리하고 쌀 40만t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라는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난 무죄예요” 무기수의 호소 ▶6면



그림편지 - 장현우의 '제주'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주)서진종합건설 과

엘리체

엘리체

(주)서진종합건설은 여러분의 희망을 건설합니다. 창조적인 혁신설계로 입주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성실시공으로 안전한 주거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주)서진종합건설은 15년동안 지연됐던 광주쌍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서, 지난 8월 사업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 쌍촌엘리체아파트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촌아파트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성실시공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PROJECT.1
 쌍촌엘리체 2015년 12월
 602세대 분양

PROJECT.2
 화정엘리체 2016년 상반기
 400여세대 분양예정

PROJECT.3
 금호엘리체 2016년 상반기
 대단위단지 분양예정

PROJECT.4
 보령엘리체 2016년 하반기
 475세대 분양예정

서진종합건설과 함께하는 계열사

- (주)서진종합건설 [아파트시공, 건축/전기/토목/조경공사]
- (주)경방건설 [토목철근, 콘크리트시공]

엘리체 레저산업 [골프장운영]

(주)에스케이이공업 [아스콘 품질 개발]

에스이앤씨(유) [공동주택시행사]

(주)서진통력 [풍력발전소운영]

동일산업주식회사 [레이미/아스콘/세균제 혼합액 제조판매]

서진철강 [철근가공/철근 유통업]